1월

울산매일

2022년 01월 06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북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아동 눈높이 맞는 도시 만들 것"

4년간 7대 과제·42개 세부과제 추진

울산 북구는 5일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울산 북구는 5일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선포식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의회 의원, 아동·청소년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아동권리헌장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인증서 전달, 선포문 낭독, 인증 퍼포먼스, 현판식 순으로 진행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지자체를 말한다.

북구는 지난 3년 동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에서는 최초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65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기간은 2025년 12월 20일까지로 4년이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준 관계자와 주민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북구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오는 2025년까지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행복도시 북구를 조성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기반 구축 △아동이 신나고 행복한 북구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북구 △사각지대 없는 아동이 안전한 북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북구 △아동의 꿈이 실현되는 북구 △아동이 살기 좋은 북구 등 7대 과제를 선정하고 42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아 기자 lawyer405@iusm.co.kr

울산신문

2022년 01월 13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북구 어물해역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

국비 공모 선정 22억 확보

울산시는 북구 어물해역 참문어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국비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22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공모에 북구 어물해역 지역을 신청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2억원, 시비 22억원 등 총 4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울산시는 참문어의 산란, 서식기반 조성과 방류, 사후관리 등을 통해 자원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해양항만수산과 관계자는 "풍요로운 어장을 조성하고 지역특화어종인 문어의 회복과 어업생산성 증대를 비롯한 어업인 소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울산제일일보

2022년 01월 12일 수요일 006면 사회

북구, 돌봄 사각지대 '안심살피미 앱' 운영

위험신호 문자 전송 서비스

울산시 북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안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생 가능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울산 안심살피미 앱'을 본격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 안심살피미 앱'은 대상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화면 터치나 버튼 조작 등 휴대전화 사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긴급 구호자로 등록한 보호자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에게 위험신호 문자가 전송되는 서비스다.

보호자와 담당자가 위험신호 문자를 받으면 먼저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 협력해 방문 확인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게 된다.

북구는 우선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 200명을 대상으로 '울산 안심살피미 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순차적으로 사각지대 주민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 안심살피미 앱'은 안드로이드 시스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이면 누구나 설치해 사용 가능하다.

김원경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1월 25일 화요일 006면 사회

북구, 분산된 고충민원창구 통합 운영

방문·홈페이지 민원,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울산시 북구가 분산된 고충민원창구를 단일 창구로 통합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처리 효율도 높인다.

24일 북구에 따르면 26일부터 고충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운영한다.

북구는 현재 진정·고충 등 방문민원과 구청 홈페이지 내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고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류가 다양하고 시스템마다 접수와 처리방식이 다양해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북구는 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통합 운영으로 민원인은 민원 처리결과를 서신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신문고의 실시간 문자서비스와 Q&A와 같은 각종 부가기능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져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다수기관 연계민원의 처리가 원활해지는 등 업무 효율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기존 게시판 형식으로 운영됐던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통합 후 민원 신청·조회, 관리가 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북구는 이번 통합창구 운영으로 민원처리 답변 시 유사 처리사례 제공으로 단순 민원은 즉시 해결할 수 있고, 지자체 간 민원사례 공유로 일관성 있는 민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와 주민요구를 행정이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민원 창구를 통합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2월

경상일보

2022년 02월 10일 목요일 010면 문화

울산쇠부리축제, 3년만에 대면행사 추진

5월13~15일 달천철장 일원 개최
이달부터 축제 슬로건 공모 돌입
체험키트 이벤트·월드타악 공연

3년 연속 개점휴업 상황인 '울산쇠부리축제'가 오는 5월 드디어 대면행사를 추진한다.

'울산쇠부리축제'가 드디어 3년 만에 대면행사를 다시 추진한다.

울산시 북구와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는 9일 북구청 상황실에서 2022년도 1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18회 울산쇠부리축제는 5월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달천철장 일원에서 대면행사로 개최된다. 올해 축제는 지난 2019년 축제 행사장을 울산북구청 광장에서 달천철장으로 옮긴 이후 첫 대면행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비대면으로만 진행됐다.

추진위는 이번달부터 곧바로 축제 슬로건 공모에 들어간다. 체험키트 이벤트 등으로 온오프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월드타악 6개팀을 초청해 세계 각국의 타악기 선율을 들려주는 무대도 마련한다. 또 자동차 폐부품과 폐타이어를 개조한 정크아트 전시회도 선보일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축제 시기와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즐거움을 안겨주자는 의도다. 좀더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거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울산신문

2022년 02월 09일 목요일 007면 사회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역상권 살린다

이진상가·코끼리종합시장 2곳
전통상가 준하는 지원 가능해져

울산 북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선다.

북구는 농소3동 이진상가와 농소1동 코끼리종합시장을 첫 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구역을 시장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북구는 지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진상가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며, 코끼리종합시장은 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으로 2곳 모두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앞으로 권역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스상인 조직화 지원 스상권 컨설팅 및 역량 교육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신청해 지원할 계획이다.

윤혜원기자 usjhw@

울산신문

2022년 02월 09일 수요일 013면 사람

북구 거주 만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드려요

울산지역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행
대상자 8명 계좌로 100만원 지급

울산 북구가 올해부터 울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노후생활 안정과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100세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노인이며, 생애 1회 100만원을 지급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2개월 전 대상자 주소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만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위임을 받은 자가 필요한 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인 1922년 출생 노인은 8명으로, 신청 다음달 25일에 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100세를 맞이한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울산신문

2022년 01월 17일 월요일 007면 사회

북구, 올해 울산형 혁신 교육지구 사업 본격 추진

지자체·교육청 2억씩 투자 교육과정
학교와 행재적 협력해 인적자원 활용
창의적 체험과정·미래기술 탐방 지원
영어놀이터·방문 과학캠프등도 운영

울산 북구가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북구는 지역과 학교의 행·재정적 협력 및 인적자원의 활용을 통해 북구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북구에 따르면 '행복한 상상, 다양한 성장을 지원하는 미래교육도시 울산 북구'를 비전으로, 혁신교육지구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지역 인프라 활용을 위한 혁신교육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별 창의체험과정 지원, 미래기술체험을 위한 탐방,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토론배틀대회 등을 진행한다.

또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문창의 과학캠프, 주니어 데이터크리에이터 과정, 미디어 체험과정 등을 개설해 운영한다.

더불어 북구는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영어 교육 콘텐츠를 공유한 영어놀이터 운영, 방학 동안 우수대학을 방문하는 체험형 과학캠프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북구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과 학교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마을강사'로 양성해 지역에서 강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의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펼칠 수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북구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의 교육여건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로나눔교육지구는 울산형 혁신교육지구의 명칭으로, 울산의 혁신교육 브랜드 '서로나눔'과 교육부의 '혁신교육지구'를 결합한 용어다.

한편 울산 교육청과 북구청은 지난해 9월 교육협력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서로나눔교육지구(혁신교육지구)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로나눔교육 사업은 기초지자체와 교육청이 각 2억원의 예산을 대응 투자해 총 4억원의 교육경비로 지자체별 특색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3월

울산신문

2022년 03월 07일 월요일 007면 사회

북구, 권역·테마별 관광 콘텐츠 개발 추진

강동-체험·휴식·체류 맞춤
진장-유통단지 연계 소비형

울산 북구는 지역 맞춤형 테마관광 콘텐츠 개발 용역을 추진해 5GO(먹고, 보고, 즐기고, 사고, 잠자고) 싶은 관광도시 만들기에 나선다.

북구는 이달부터 용역에 들어가 권역별, 테마별 관광상품 및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은 크게 2개 권역, 3개 테마로 나눠 진행된다.

강동권과 진장권으로 나눠 5GO(먹고, 보고, 즐기고, 사고, 잠자고) 싶은 관광코스 및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강동권은 체험과 휴식, 체류,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을, 진장권은 정원도시와 진장유통단지를 연계한 소비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을 진행한다.

테마는 생태관광, 산악 및 해양 웰니스 관광, 역사문화관광으로 생태관광은 하나로정원과 명촌천, 동천강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심 속 웰니스 코스와 콘텐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산악 및 해양웰니스 관광은 천마산과 무가산, 산림복지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악레포츠, 액티비티 상품 개발과 강동관광단지, 강동해안공원 조성 등을 연계한 해양자연치유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역사문화관광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관광벨트화와 달천철장 브랜드 육성방안 연구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 밖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케팅 방안과 관광 약자까지 수용하는 온·오프라인 무장애 관광도시 추진방안 등도 이번 용역에 포함된다.

정규재기자 usjgj@

경상일보

2022년 03월 22일 화요일 002면 종합

북구, 명촌천 침수피해 방지 종합대책 추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공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울산 북구 명촌천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과 종합정비사업이 동시 추진된다.

북구는 이달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총 사업비 200억~300억원 규모의 명촌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예산 2000만원을 들여 재해지구 지정과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으며, 공모사업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께 확정된다.

북구는 정비사업을 통해 크게는 명촌천에 분류수로를 추가로 설치, 태화강으로 빠져나가는 물길을 기존 1개에서 2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명촌천 일대에 하수도 및 펌프장 등도 추가로 설치해 위험요인을 일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구는 정부 공모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명촌천 일대에 대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함께 추진중이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지자체장이 울산시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요청해 지정할 수 있다. 북구는 내달 중으로 관계기관의 현장검토를 거쳐 오는 6월께 지구지정을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 005면 사회

북구, 담배꽁초 모아오면 종량제봉투 제공

울산 북구청은 쓰담쓰담 수거장려사업(쓰레기봉에 담배꽁초를)과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북구는 4월 1일부터 담배꽁초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로 바꿔주는 '쓰담쓰담 수거장려사업'을 시작한다.

쓰담쓰담 수거장려사업은 북구민들이 버려진 담배꽁초를 모아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져가면 담배꽁초 60g(120개 정도) 당 10리터 종량제봉투 1장을 지급하는 것으로 담배꽁초 수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모래나 다른 쓰레기와 혼합돼 있으면 분리해야 하고 물기가 묻어 있는 담배꽁초는 무게의 80%만 적용한다. 종량제봉투는 개인당 월 30장으로 제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북구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 특별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 이번 서면회의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 5명에게 1년 동안 생활지원(최대 28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대한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도 공유했다.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청소년안전망을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선정, 위기청소년 발견 및 보호,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등을 논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김지은 기자

울산신문

2022년 03월 16일 수요일 007면 사회

북구,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하나로 어울길' 본격 추진

국가철도공단 심의 통과 이어
23일 유휴부지 활용 협약 체결
울산시계-송정지구 구간 9.5㎞
선형 숲길 연결…광장·쉼터 등
연내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완료

울산 북구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인 '하나로 어울길 조성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5일 북구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가철도공단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에서 지역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계획이 '원안채택'으로 심의를 통과했고, 오는 23일 국가철도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하나로 어울길'로 기본 콘셉트를 설정해 2026년까지 총사업비 약 400억원을 투입해 울산시계에서 송정지구 구간 길이 9.5㎞, 면적 22만㎡ 동해남부선 폐선부지에 선형 숲길을 연결하고, 주요 지점마다 광장과 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농소2동 이화마을에는 주민 소통공간인 관문 광장과 이화정 쉼터를 조성하고, 화정다움은 통로박스를 철거해 광장 조성 및 전망데크와 포켓쉼터,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등 주민 소통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신천, 호계, 상안, 천곡 등 4개 동과 동천, 매곡, 천곡, 수정 4개 하천이 만나는 매곡천 하류 지점에는 만남의 광장을 조성해 전망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고 호계역은 열차 박물관으로 리모델링하고, 폐선부지에는 폐열차와 레일을 활용한 레일 정원도 조성한다.

북구는 우선 구비 21억원을 투입해 올해 내로 국가철도공단의 통로박스 등 철도 시설물 철거 작업과 함께 미세먼지 차단 숲 등 각종 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한 도로 확·포장, 폐선부지 정지작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폐선된 철도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했으며, 주민설문조사,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시 숲과 테마광장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 지난해 10월 국가철도공단에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제안했다.

북구 관계자는 "철도 유휴부지를 숲길과 광장 등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 지역 재생과 도심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들 사례를 참고해 북구 폐선부지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재기자 usjgj@ulsanpress.net

4월

울산매일

2022년 04월 01일 금요일 008면 사람

북구 '바다도서관' 기공식…내년 3월 준공

북구는 31일 산하동 1006-5번지 일원에서 바다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열었다. 이동권 북구청장과 임채오 북구의회 의장, 지역 주민 대표 등이 시삽을 하고 있다.

울산 북구는 31일 산하동 1006-5번지 일원에서 바다도서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다.

강동산하지구 내 건립되는 바다도서관은 부지면적 680.02㎡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980.01㎡ 규모로, 자료실과 다목적실, 다함께돌봄센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된다.

지하1층에는 문서고와 기계실, 지상 1층에는 다목적실과 다함께돌봄센터, 2층에는 어린이열람실과 유아열람실, 3층에는 종합자료실과 사무실이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바다도서관 건립에는 국비 18억1,600만원과 시비 10억7,300만원, 구비 10억7,300만원 등 총 39억6,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다.

북구는 산하지구 내 대단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인구 증가로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바다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2019년 부지선정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 중앙정부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본격 건립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2021년 5월 건축설계 공모작 선정,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2년 3월 시공업체 및 건설관리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이날 기공식을 갖게 됐다.

기공식에서 이동권 북구청장은 "산하지구는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했다"며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바다도서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구에는 현재 7개 구립 공공도서관이 권역별로 조성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

김상아 기자

울산신문

북구청사 일대 행정타운 역할 재정립한다

유휴부지 680면 주차장 조성

울산매일

2022년 04월 22일 금요일 007면 사회

북구,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준공

31억 투입 옥상천문대 등 조성
신흥사 등 연계 관광자원화 기대

울산 북구는 지역 호국역사를 기리기 위해 역점 추진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을 21일 준공했다고 밝혔다.

매곡동 838-31번지 일원에 조성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은 북구가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입, 지난해 9월 착공해 이달 준공했다.

북구는 지난 2019년 7월 기박산성이 위치한 기존 소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고시한데 이어 지난 2020년 12월 관광기금 15억원 [illegible]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공원 전체 면적은 8,640㎡로, 의병이야기길, 추모마당, 포함 [illegible] 체험장 등으로 이뤄져 있다.

또 관리사무동 연면적은 443㎡로, 전시실과 휴게시설, 옥상전망대 등으로 구성됐다.

북구는 이번 역사공원 준공으로 기박산성과 의병 창의의 역사상을 되새기고 인근 호국사찰인 신흥사 등과 연계해 관광자원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 이동권 북구청장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이 선조들의 정신을 되새기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북구에 산재한 호국역사 문화자원을 연결해 역사문화벨트 관광코스를 조성, 호국문화·관광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공식 후 북구문화원은 현장에서 제33회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를 열었다. 기박산성 의병 추모제는 임진왜란 때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구하기 위해 의병 및 승병을 창의한 날을 기념하고 그들의 넋을 기리고자 매년 4월 열리고 있다.

윤병집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4월 06일 수요일 005면 사회

북구, 울산 최초 범죄예측분석지도 시스템 구축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용…사건·사고예방 신속 대처
관제센터 모니터에 표출해 실시간 범죄·사고 지역 분석
현재 시각 사건·사고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매시간 작성

울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북구청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이용한 범죄예측분석지도 시스템을 구축해 사건·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나섰다. 범죄예측분석지도(PCAM : Predict Crime Analysis e-Map)는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 등을 빅데이터로 분석, GIS(전자지도) 위에 히트맵 등으로 표출해 통합관제센터에서 사건·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또는 시간을 선별하고 집중 관제하는 시스템이다.

5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BI(Business Information) 보고서를 이용해 범죄동과 범죄동, 범죄유형별, 주·야간 사건·사고, 월별추세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지도에 표출해 시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완료했으며 해당 사업을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예측분석지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특히, 현재 시각 사건·사고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매시간 작성하고 관제센터 모니터에 표출해 실시간 범죄 사건·사고 다발지역을 분석, 우선적으로 집중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북구는 범죄예측분석지도 서비스로 취약지점에 대한 관제요원들의 집중 관제가 가능해져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사고 및 범죄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는 최근 3년 공안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에서 상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분야에서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1등급을 차지했고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3년 중안 2등급을 받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안전지수를 보였다.

북구청 관계자는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례를 적용하는 등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범죄예측분석지도와 관련 빅데이터 분석자료는 현재 추진중인 안전대책과 더불어 교통 등 안전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5월

3년만에 재개 울산쇠부리축제 13일 팡파르

경상일보 2022년 05월 09일 월요일 010면 문화

쇠부리복원실험·타악공연
전시·체험 행사 등 다채
대면·비대면 혼합축제로
15일까지 북구 달천철장서

울산광역매일 2022년 05월 25일 수요일 003면 사회

북구, 동천강에 야생조류 탐조대·쉼터 조성

쉼터데크·전망망원경·안내판 설치해 야생조류 관측

울산광역매일 2022년 05월 20일 금요일 003면 사회

북구, 8개 센터에 옥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365일 24시간 운영…납세증명서 등 113종 민원서류 발급

울산신문 2022년 05월 27일 금요일 007면 사회

북구지역 캠핑·트래킹 명소 5곳 '안심관광지' 선정

6월

울산신문 2022년 06월 23일 목요일 003면 종합

22일 '북구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이동권 북구청장, 임채오 북구의장, 박병석 울산시의장, 주민 대표 등 참석 내빈들이 연꽃단지의 생태산책로를 둘러보고 있다. 우은정기자

북구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사업 완공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 17억원 투입
습지대 연꽃단지로 만들고 나무 심어
생태놀이터·산책로·정자 등도 조성

울산 북구 원연암마을에 도시생태휴식공간이 생겼다.

북구는 22일 연암동 원연암마을 일대에서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연암동 740일대에 조성된 원연암마을 도시생태휴식공간은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7억원이 투입된 생태복원 사업으로 기존 습지를 중심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하고 나무를 심어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꾸몄다.

또 생태놀이터와 생태산책로, 정자 등도 조성해 주민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5.3㏊ 부지에 교목과 관목 등 나무 3만5,000그루를 심었고 돌무더기와 비오톱습지 등 다양한 생물 서식처도 조성했다. 또 산책로를 기존보다 80㎝정도 높이고 배수관을 추가로 매설하는 등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원연암마을은 미포국가산업단지와 동해남부선(폐선) 사이에 위치한 자연마을로 주택 노후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생활여건이 열악한 편이었다.

북구 관계자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휴식공간 조성으로 소외돼 있던 원연암마을 일원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며 "주민들의 힐링공간이자 생태학습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울산신문 2022년 06월 17일 금요일 007면 사회

북구, 지역 문화 유적 체계적 관리 나선다

울산제일일보 2022년 06월 02일 목요일 007면 사회

북구, SNS 관광후기 이벤트 진행

우수후기에 모바일상품권 지급

울산시 북구가 SNS 관광후기 이벤트 '북스타그램'을 진행해 소규모 여행객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1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북스타그램'을 진행하고, 우수후기를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북스타그램'은 북구를 방문한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울산북구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후 북구관광지를 여행하며 느낀 소감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개인 SNS에 업로드하면 된다. 응모시에는 #2022울산북구북스타그램응모_00월을 필수 해시태그로 달아야 한다.

북구는 매월 후기를 심사해 최대 20명까지 우수후기를 선정,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또한 선정된 우수후기는 북구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소개되며 추후 관광 홍보용으로 활용한다.

북구 관계자는 "북구의 숨겨진 관광명소를 알릴 수 있는 생생한 후기와 유용한 관광정보를 많이 남겨주시길 바란다"며 "바다와 산이 아름다운 북구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원경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6월 21일 화요일 005면 사회

북구, 내달 1일 점심시간 휴무제 본격 시행

점심시간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모든 대면 민원 업무 중단

울산 북구청은 내달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20일 북구에 따르면 7월 1일부터는 낮 12시에서 1시까지 북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모든 대면 민원 업무가 중단된다.

북구는 휴무제 본격 시행에 앞서 주민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과 인터넷 서류 발급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점심시간을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구에서는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 점심시간에도 민원 서류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업무 특성상 대행이 어렵거나 교대 직원의 업무 부담 등의 이유로 공무원들이 온전히 1시간의 점심시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공무원 노동조합에서도 공무원 휴식시간 보장과 민원서비스 효율 제고 등을 이유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2017년 7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전국 처음으로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됐고, 지난해 7월부터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는 부산광역시 15개 기초자치단체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동참해 전국 3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북구는 이번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동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외부로 이전설치했다. 민원 서류 발급 건수가 많은 명촌문화센터에는 외부에 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해 현재 총 2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중이다. 또한 정부24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주민자치회 등 각급 단체와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7월

울산광역매일 2022년 07월 26일 화요일 002면 종합

북구, 민원 현장서 현장 구청장실 운영

구청장이 민원인 1대1로 만나 민원 청취 해결 방안 모색

울산 북구는 이달부터 구청장이 민원 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구청장실'을 운영한다. 7월에는 27일 강동동 민원 현장에서 첫번째 현장 구청장실을 마련한다.

'현장 구청장실'은 구청장이 민원 현장에서 주민과 1대1로 만나 민원사항 등에 관해 대화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매월 두 번째 수요일 또는 네 번째 수요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 신청 건수에 따라 매월 1~2회 운영될 예정으로, 주민 1인당 20분 정도의 시간이 배정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직접 관련 부서에 검토를 지시하거나 타 기관에 협조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민원 해결에 나선다. 민원에 대한 최종 답변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청 홈페이지(소통과 공감 → 주민건의사항공개) 게시판에 게시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천동 구청장은 "현장에서 생생한 주민 목소리를 듣고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7월 28일 목요일 004면 사회

울산 북구청은 강동지역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북구, 농업용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실시

울산 북구청은 강동지역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용 드론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농업용 드론 3대를 투입해 50ha 정도의 논에 잎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혹명나방류 방제를 위한 살균·살충제와 영양제를 살포했다.

북구는 올해 드론방제 지원사업으로 드론방제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드론 공동방제로 인력난과 고령화로 인한 농가 노동력 부담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드론 공동방제 지역을 북구 전역으로 확대해 경영비는 절감하고 품질은 높여 북구 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울산매일 2022년 07월 13일 수요일 009면 사람

북구보건소, 8~11월 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울산 북구보건소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8월에서 11월까지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열리는 임신부·영유아 건강교실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힐링 요가, 태교 바느질, 똑소리나는 엄마 준비교실을, 영유아 대상으로는 아기사랑마사지, 오감발달 놀이터 등으로 진행된다.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산부 및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희망자는 북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방법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별 자세한 일정 등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북구보건소 전화(☎241-8275)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지혜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7월 04일 월요일 005면 사회

북구보건소, 달리는 마음 상담소 정류장 운영

정신건강전문요원 상주해 정신건강 검진·스트레스 측정

울산 북구보건소는 지역 정신건강 취약지역 3개 동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달리는 마음 상담소 정류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류장이 설치된 농소1동(호계교 인근, 화요일)과 강동동(문화쉼터 몽돌 주차장, 수요일), 염포동(북구노인복지관 분관 앞, 목요일)에 지정된 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신건강상담차량이 정차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차량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상주해 정신건강 검진 및 스트레스 측정, 대상자별 맞춤형 정신건강상담 및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정종식 기자

8월

울산매일 2022년 08월 09일 화요일 003면 종합

북구, 강동해변 '쇠부리' 캐릭터 포토존 설치

정자수변공원 내·산하 해변 2곳
10일부터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

울산 북구 강동 정자수변공원 내 카페로드 입구에 쇠부리 캐릭터와 함께 설치된 포토존. 북구 현재공

울산 북구는 강동 해변 일대에 북구 대표 캐릭터 '쇠부리'를 활용한 조형물을 설치해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캐릭터와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북구는 울산의 대표 명소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강동 해변 일원 정자 해변수변공원 내 카페로드 입구와 산하 해변 인근 인도 등 2곳에 쇠부리 캐릭터와 'GANGDONG(강동)' 글자가 어우러진 조형물을 설치했다. 조형물은 각각 높이 1.6m 폭 6m, 높이 1.75m 4.2m의 크기로 성인 2명이 양옆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제작됐다.

북구 관계자는 "캐릭터 조형물은 인증샷을 찍으면 아름다운 강동 해변이 함께 담길 수 있도록 설치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울산시민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동 해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강동해변과 쇠부리 캐릭터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북구는 강동 해변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기념해 오는 10일부터 인증샷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캐릭터 조형물 2곳 중 1곳을 방문해 찍은 사진을 북구 공식 SNS 채널에 게시된 이벤트 참여 페이지를 통해 인증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0명에게는 치킨과 커피 기프트콘을 선물한다. 유명진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8월 11일 목요일 002면 종합

북부경찰서-북구청, 범죄예방 협업 시스템 구축

울산북부경찰서와 북구청이 범죄예방을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10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두 기관은 범죄예방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었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사항을 개진하고 그 결과를 '울산시 북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담아 울산시 최초로 협업을 통한 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북부경찰서는 10일 북구청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감사장을 전달했다. 곽미소 기자

울산광역매일 2022년 08월 31일 수요일 004면 사회

울산 북구보건소는 30일 한방진료실 개소식을 열었다.

북구보건소, 한방진료실 개소식 개최

울산시 처음 한의사 채용

[illegible]

경상일보 2022년 08월 31일 수요일 002면 종합

광역전철 북울산역까지 연장…2025년 개통

기존 부산-태화강역 노선 확장
선로는 동해남부선 구간 활용
237억들여 스크린도어 등 조성
역세권 개발·경제 활성화 기대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은 북울산역 전경.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울산 북구 주민들의 숙원인 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 운행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태화강역-북울산역 광역전철 연장사업 기본 계획'을 오는 9월1일 확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광역전철 연장 운행은 2025년으로 예정돼 있다.

시는 북부생활권 주민의 이동 편의와 역세권 개발 및 지역 간 연계 등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 부전역에서 울산 태화강역까지 운행 중인 광역전철을 북울산역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

총 사업비 237억원(국비 166억원, 시비 71억원)을 투입해 태화강역~북울산역 4.7㎞ 구간을 광역전철이 운행할 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한다.

선로는 기존 동해남부선 구간을 변경하거나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한다. 다만 북울산역에는 전동차 운행 및 정차에 필요한 고상홈 승강장, 스크린 도어, 전동차 전용선 등을 설치한다.

국토부는 고시와 함께 실시설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실시설계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실시설계가 완료돼야 착공이 가능한 만큼 실시설계 기간에 따라 착공 일자도 달라지게 된다.

차량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 사이 제작을 발주한다. 제작에 보통 30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 시는 공사가 일찍 끝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여유 차량을 우선 투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북울산역과 부전역 사이에는 무궁화호만 7회(왕복 14회) 운행 중이지만, 연장 운행이 현실화되면 광역전철이 하루 44회(왕복 88회) 추가 운행된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 15분, 평시 25~30분 간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해 실시설계, 공사 및 전동차 제작 등의 후속 절차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9월

울산광역매일 2022년 09월 28일 수요일 002면 종합

북구, 현대차 전기차 공장 신설 지원 TF팀 운영

울산 북구가 현대자동차 울산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과 관련,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원스톱 행정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북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재정지원반과 인허가접수처리반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고 소관 부서별 행정 사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

TF팀 재정지원반은 투자유치 보조금과 조세감면 등을 검토 및 처리하고, 인허가접수처리반은 건축행위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을 접수 및 처리하게 된다.

박천동 구청장은 "울산 경제의 원동력인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가능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며 "울산시의 '첨단투자지구' 지정 추진에도 적극 공감하며 울산과 북구가 산업수도에서 미래 신성장산업의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9월 23일 금요일 014면 사람들

북구는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이 상패를 전수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상

울산시 북구는 올해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우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포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코로나19가 3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160곳의 방역안심식당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방역안심 식당은 농림축산식품 공공데이터 포털에 방역안심식당으로 홍보되고 수저집과 방역안심구더미를 지원받는다.

북구 관계자는 "주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방역안심식당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곽미소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9월 23일 금요일 003면 종합

북구, 공식 캐릭터 쇠부리 에코버전 제작

녹색정원도시 조성사업 홍보 등 활용

울산시 북구는 공식 캐릭터 쇠부리 에코버전을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북구는 에코버전 캐릭터로 친환경 녹색도시 이미지 강화에 나선다.

북구는 기존 캐릭터의 활활 타오르는 불꽃머리가 정원 및 숲의 이미지와는 상충된다고 판단, 산림과 공원 등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개선했다.

에코버전은 '쇠부리, 친환경 옷을 입다'라는 콘셉트로 제작해 대표 캐릭터 쇠부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친환경 옷을 입고 출동하는 부캐로 활동하게 된다.

쇠부리 에코버전은 기존 기본 형태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불꽃 모양 대신 식물 이파리 모양의 녹색 모자를 쓴 형태로 제작됐다.

또 쇠부리가 들고 있는 소품 역시 북구 12경 중 하나인 천마산 편백 산림욕장의 편백나무 묘목을, 의상은 에코백을 재활용한 멜빵바지를 착용해 녹색 정원도시 북구의 친환경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북구는 앞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과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환경·녹지·정원 관련 주요 사업 등에 특화한 홍보활동에 쇠부리 에코버전을 활용할 계획이다. 곽미소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9월 26일 월요일 015면 사람들

북구보건소는 지난 21일 자살예방사업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박천동 북구청장이 상장을 전수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구보건소, 자살예방사업 우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울산시 북구보건소는 자살예방사업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북구보건소는 2013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개소해 지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유가족 지원, 달리는 마음 상담소 운영, 자살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정신건강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미소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09월 27일 화요일 007면 사회

북구, '떠오르는 관광도시' 콘텐츠 개발 박차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강동·진장권 2개 권역 중심 4개 테마별 27개 핵심사업 도출

10월

울산제일일보 2022년 10월 04일 화요일 007면 사회

대기업 조합원에 '아동학대예방 교육' 호평

북구, 5개월간 현대차 노조 2만4천여명에 '찾아가는 교육'… "파급 효과 기대"

울산시 북구가 지역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노조와 손을 잡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5개월 동안 조합원 2만4천여 명이 교육을 받아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인식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앞서 북구는 지난 4월 22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현대차 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 자료 제공과 강사 파견을 지원하고, 현대차 노조는 교육장 제공과 함께 조합원의 교육 참여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교육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현대차 노조의 교육 시간을 활용해 조합원 2만4천56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으로 나눠 497회 진행됐다.

지자체와 대기업 노조가 이처럼 대규모 조합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추진한 사례는 사실상 처음으로 북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인식을 개선, 아동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정 내 문화를 조성해 학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도움이 필요한 아동 발견율을 높여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신속히 개입해 아동이 안전하게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동 안전망을 형성하고자 한다.

북구 관계자는 "2020년 1월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의한 징계권 조항'이 삭제돼 가정 내 체벌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 대한 폭력이 용인될 수 없음이 법률적으로 확인되는 등 아동권리 전반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민의 아동 권리와 학대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은 상태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수행한 '2021 아동권리 인식조사 보고서'에는 응답자 71.5%가 아동인권교육 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변화하고 있는 아동권리와 아동학대 기준에 대한 시민 인식과 교육 경험이 부족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북구에 따르면 울산은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타 시도와 비교해 일자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30~40대 가구 비중이 높고,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비중이 높아 아동권리와 학대 예방 교육 필요성이 더 크다.

실제로 북구만 해도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8월 말 기준 4만5천187명으로 20.7%를 차지해 전국 평균인 15.2%를 웃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대상을 현대차 노조로 선택한 것은 교육의 파급 효과 때문이다.

북구에 위치한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중에는 지역 주민이 많아 교육 효과성이 클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에서는 아동권리 인식 변화, 아동학대 유형과 현황, 아동학대 예방, 자녀와 긍정적 관계 맺기 방법 등을 다뤘다.

특히 가정 내 체벌을 금지하도록 바뀐 민법 내용을 홍보하고, 단순히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 학대나 방임도 학대에 포함된다는 점을 알려 아동학대를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했다.

교육 후 노조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조합원 대상 교육 시간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 할애해 준 현대차 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은 이번으로 끝내지 않고 교육 대상을 점차 다른 기업체나 기관으로 확대하며 앞으로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미소 기자

울산매일 2022년 11월 08일 화요일 008면 사람

북구보건소, 아토피·천식예방 우수 질병관리청 표창 울산북구보건소는 '2021년 보건소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7일 박천동 북구청장이 표창을 전해 받은 후 기념촬영을 했다.

울산광역매일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004면 사회

북구 관제센터,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울산 북구가 운영하는 CCTV관제센터가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10대 차량털이범 현장 검거를 도왔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CCTV 통합관제센터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 호계·매곡동 일대 차량털이범과 관련해 CCTV 실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중 0시 59분께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 2명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이드미러가 펼쳐진 차량을 골라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을 포착하고 즉시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오전 1시 5분께 용의자들이 신천동 한 아파트 인근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경찰 상황실로 이들의 이동 방향을 전달했으며 1시 15분께 순찰차 3대가 출동해 용의자들을 발견, 검거했다.

북구 관계자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으로 추가 절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울산제일일보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003면 종합

북구, 창업 육성 지원 '스타 비즈니스 센터' 조성

24일부터 입주기업 모집… 제조업·제조지원 서비스업 입주 가능

울산시 북구가 창업 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해 스타 비즈니스 센터(Star Business Center)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북구는 본격 운영에 앞서 오는 24일부터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간다.

매곡산업단지 내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에 위치한 스타 비즈니스 센터는 (가칭)예비 스타기업 육성실과 1인 기업 육성실로 운영한다.

북구는 스타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울산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사업공간을 제공한다.

예비 스타기업 육성실에서는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및 경영 컨설팅 맞춤형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입주 가능 업종은 제조업 또는 제조지원 서비스업이다.

예비 스타기업 육성실은 미래 예비 스타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5개 기업을 모집한다.

1인 기업 육성실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의 1인 기업 10개 정도를 선정한다.

입주 신청 및 문의는 울산테크노파크 기업육성실 전화(☎219-8525)로 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창업 육성공간인 스타 비즈니스 센터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창업을 꿈꾸고 도전하는 청년과 퇴직자 등에게 꿈과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센터에서 성장한 기업이 울산과 북구의 스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북구는 스타 비즈니스 센터 운영 외에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술혁신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곽미소 기자

11월

울산신문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007면 사회

북구, 동축산 정상 '염포전망대' 조성…360도 조망 가능

태화강 물길 모티브로 제작
일몰사진 명소 벌써 입소문
일광만디 탐방길 명소 기대

울산 북구는 동축산 정상 염포전망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360도 조망 가능한 명소를 조성한다.

울산 북구는 동축산 정상 염포전망대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360도 조망 가능한 명소를 조성한다.

북구는 정원박람회 공원을 연계한 명품 도로 주변에 나무 등을 심어 주민의 문화체험의 장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염포전망대 공원은 태화강 전망대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명소로 조성돼 "일몰사진 명소로 벌써 입소문이 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몰사진 명소로 입소문을 타면서 사진애호가들도 찾아와 관광객을 모을 것이다.

공공조형물에는 북구 결광천과 동 마을인 동축산 정상에 위치해 광역 결광천과 주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구 관계자는 "염포전망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염포전망대가 북구의 새로운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빈기자 [illegible]

울산광역매일 2022년 11월 03일 목요일 005면 사회

울산 북구는 올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북구, 소통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울산 북구는 올해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올해 북구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15개 단체 회원과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올해 단체별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체험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북구 관계자는 "소통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경상일보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012면 사람

북구·농소1동 주민자치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우수사례 공모전 장려상

제 2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울산 북구농소1동 주민자치회가 장려상을 수상했다.

일산 북구의 농소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 참여해 제도 정책 분야와 주민자치 분야에서 각각 동래동/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국가형 주민자치회 운영 방법 마련 위한 제도적 개선 이슈" 제주으로 공모해 올해의 주민자치로 전 동 전체 읍면동 운영 제도적 개선 모색, 주민자 운영사업을 통한 다양성의 확보 사례로 제도 정책 분야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농소1동 주민자치는 "자체적 정책 개발을 위한 제도적 개선 이슈 제시, 주민자치 활동 지원 기반 조성 및 지방의 자율 기능성 확보, 주민 자치분야 정책성과 확장 사례 개발 등 주민자치회의 주도적 역할 사례로 주민자치 분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신정 기자 [illegible]

울산신문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007면 사회

'북구 천곡샘골생태공원 준공식' 이 10일 천곡동 985 일대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박천동 북구청장, 김정희 북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등 참석 내빈들이 준공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천곡샘골생태공원 준공…친환경 힐링공간 탄생

잔디마당·생태놀이터 등 조성

울산 북구는 10일 천곡동 985-1일대에서 천곡샘골생태공원 준공식을 가졌다.

천곡샘골생태공원은 지난 한 해 동안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공사를 마무리하고 이날 준공식을 가졌다.

공원은 총 사업비 8억원을 들여 잔디마당, 생태놀이터, 생태관찰 데크로드 등 시설을 조성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 생태휴식공간으로 변했다.

천곡샘골생태공원이 향후 천곡일대 주민들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변했다.

북구는 "천곡샘골생태공원이 향후 천곡일대 주민들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변했다.

북구는 "천곡샘골생태공원이 향후 천곡일대 주민들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공원이 인근과 지역의 어우러지는 친환경 생태휴식공간으로 변했다.

김수빈기자 [illegible]

울산제일일보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013면 사람들

북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우수단체 선정 북구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 우수단체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함께 4천72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9일 박천동 북구청장이 상장을 전수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2월

울산매일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007면 사회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공모 선정 '최우수'

북구, 하반기 베스트사업 8개 확정
현장 구청장실 등 3개 사업 '우수'

울산 북구는 2022년 하반기 베스트사업으로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490억원) 선정 등 8개 사업을 뽑았다고 21일 밝혔다.

북구는 최근 구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베스트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된 '명촌지구 풍수해생활권 공모사업 선정'은 매년 반복적인 하천 범람과 침수피해를 겪는 명촌천 일대를 정비해 주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권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예방사업 최대 규모에선 확보,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등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모두 반영한 성과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업으로는 구청장이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가 주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현대자동차노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학대예방교육,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도로구조개선을 통한 편리한 통행공간 조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됐다.

현장구청장실은 주민과 신뢰를 쌓는 진정성 있는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현대차 노조원 아동학대예방교육은 민간부문에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해 아동이 중심인 아동친화도시 구현에 기여했다는 평을 얻었다.

도 폐선부지 정지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은 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과 도시숲 산책로 기반을 마련하는 등 주민 정주여건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SNS 소통 캠시피로 빚어낸 내 손안의 명품 북구', '동천 암벽분수 조성사업', '활력 더 애해진 연암정원', '보건소 흡연진료실 개소' 4개 사업이 장려례 선정됐다.

윤병집 기자

울산신문 2022년 12월 02일 금요일 007면 사회

울산 북구는 소금포역사관 운영으로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지역특화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북구 소금포역사관, 도시재창조 '우수상'

염포마을 해설단 등 지역민 참여
도시재생사업 모범사례로 호평

울산 북구는 소금포역사관 운영으로 2022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지역특화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북구 염포동에 위치한 소금포역사관은 과거 소금생산지이자 상포개발지였던 염포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도시재생사업에 녹여 내 지역재생에 공헌했다는 측면 마을해설 봉사단체인 염포마을해설단의 소금포역사관을 거점공간으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는 탐방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염포동 마을계획 등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소금포역사관을 중심으로 지역민의 다양한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소금포역사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역량을 키워 나간다는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의미를 잘 살린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북구 염포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소금포역사관을 대상 일회 운영하려고 주민들과 함께 나눈 노력을 통해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것 성과지 변경 제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역사관에서 활동하는 염포마을해설단과 염포마을계획단 멤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수빈기자 [illegible]

울산광역매일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 002면 종합

울산 북구, 동천 암벽 분수 설치 준공식

사업비 15억원 투입…동천 경관개선·랜드마크 기능

울산 북구가 상안동 홈플러스 북구점 일원 동천 암벽에 분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동천 암벽분수가 설치된 지역은 장작천과 매곡천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농소1·2·3동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관문의 중심 도로인 산업도로 통행하는 차량들도 분수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다만 기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동파 가능성이 있어 분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암벽 분수는 길이 18m의 광장 더 그 폭도, 중이 5m의 조형물 2개, 스팀분수, 레이저쇼 등을 설치해 동천 경관개선은 물론이고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됐다.

북구는 동천 암벽분수 조성과 함께 맞은편 동천에 8억원을 투입해 광장을 만들고 상업로 인도를 확장하는 환경시설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동천과 매곡천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상안동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불가리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동천 암벽분수와 광장 등이 마들어져 하수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울산신문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007면 사회

울산 북구청이 2022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북구, 장애인복지분야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장애인급여 수급비율·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율 높은 평가

울산 북구청이 2022년도 장애인복지분야 지자체 평가에서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9개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도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평가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12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에는 상장과 유공공무원 표창 및 포상금이 수여된다.

북구는 장애인급여 수급비율,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을 위한 상담복 우선구매 실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장애인등록비용 지원 실적, 장애 개선정 기반 내 관점비율, 장애인전달과관련의 제 운영 실적 등 정량평가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북구는 또 북구장애인복지관 최종, 북구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북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개소 등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이 밖에도 북구장애인인권센터·북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급·간식비 추가 지원 등 지역 특화사업 부분은 장애인맞춤형 재활시설 확대, 장애인복지시설 고유 특성을 살린 평가가 부족하지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울산신문 2022년 12월 27일 화요일 007면 사회

북구 강동해변 카페로드 조성 추진에 주민들 '화색'

산·바다 주변 관광지 연계 조성
관광객 유치·상권 활성 기대감
제주 등 선진지 벤치마킹 견학유

울산 북구는 강동 강동해변 주변 일원 사업지 약 10km 해변 카페로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illegible]

울산광역매일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002면 사회

울산 북구, 동천 암벽 분수 설치 준공식

사업비 15억원 투입…동천 경관개선·랜드마크 기능

울산 북구가 상안동 홈플러스 북구점 일원 동천 암벽에 분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동천 암벽분수가 설치된 지역은 장작천과 매곡천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농소1·2·3동 주민뿐만 아니라 울산 관문의 중심 도로인 산업도로 통행하는 차량들도 분수 관람을 즐길 수 있다. 다만 기울철에는 기온 저하로 동파 가능성이 있어 분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암벽 분수는 길이 18m의 광장 더 그 폭도, 중이 5m의 조형물 2개, 스팀분수, 레이저쇼 등을 설치해 동천 경관개선은 물론이고 지역의 랜드마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비 15억원이 투입됐다.

북구는 동천 암벽분수 조성과 함께 맞은편 동천에 8억원을 투입해 광장을 만들고 상업로 인도를 확장하는 환경시설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광장 조성이 완료되면 동천과 매곡천을 찾는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 관계자는 "상안동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불가리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요청이 많았는데 동천 암벽분수와 광장 등이 마들어져 하수환경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